학생과 하나가 되는 수업

김 용 범 충남대 사학과 강사

그다지 화려하지도 않은 경력과 서울 지향적인 사회에서 지방의 한 켠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가, 아직은 훌륭하신 선생님들로부터 좀 더 가르침을 받아야 마땅한 처지에, 도리어 '나의 수업방법'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은 아무래도 격에 어울리지 않는 분에 넘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 동안 필자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수가 본교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다고 해서 여러 곳에서 취재를 하고 소개가 되기도 했지만, 정작 본인의 강의에 대해 필자 스스로가 직접 글을 쓰는 것 만큼은 극구 사양해 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대교협의 정중한 원고청탁을 받고 고심하다가 새로운 교수법을 알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번 참에 필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자신을 더욱 채찍질한다는 마음에서 글을 쓰기로 하였다.

이제 대학은 새롭게 변화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교수법이다. 그것은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강의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데 좀더 나은 강의, 학생들의 호응을 받는 명강의를 하고픈 것은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스스로가 훨씬 더 바라는 바일 것이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

학생이 없는 대학은 존재할 수 없다. 더욱이 앞으로는 학생수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의 존재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과외활동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 나라 실정에서는, 대학 존립의 중요 구성요소인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식을 함양시키는 무대는 대부분 강의실이다. 따라서 강의는 더욱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특히 학생들 입장에서 강의는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4년 동안 이수해야 될 강의시간이 최소 420시간(140학점 기준)이니, 대학생활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의는 또한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아무리 화려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강의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갓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이다. 강의는 듣는 사람에 의해서 곧바로, 그리고 정확하게 평가된다. 따라서 강의 만큼 가르치는 사람의 허상과 실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도 없다.

필자는 흔히 말하는 서울이나 외국의 유수 대학에서 수학하지 않았다. 표면상 크게 내세울 게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여 왔다. 당연한 얘기지만 외양의 학력이 결코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특히 학생들) 선입견은 그러하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를 입증

해 보이는 것으로 강의 만큼 좋은 장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처음부터 강의에 임하는 필자의 의지와 자세는 사뭇 달랐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강의를 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불행히도 필자는 "저게 바로 명강의로구나."하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질 못했다. 학생시절에 필자의 동료들은 한결같이 교수들의 강의에 대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었다. 우리들 사이에서 "저런 분이 어떻게 교수이고, 저게 무슨 대학강의란 말이냐?"라는 말은 일상어가 되다시피 했다. 심지어 어떤 교수는 능력 부족으로 한시바삐 퇴출돼야 한다는 극언도 서슴없이 토로하였다. 술좌석에서는 예외 없이 교수들에 관한 험담으로, 굳이 안주를 시키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 1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 친구들 가운데도 가끔 "야, 아무개 교수 아직도 대학에 남아 있냐?"라고 묻곤 한다. 이러한 비극적 현상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공통으로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이 필자는 학생 때에 교수들의 강의에 실망하고, 또 교수들을 비난하는 선후배를 너무나 많이 접했기 때문에, 나 자신 만큼은 결코 그러한 전철 만은 밟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였다. 그런데 막상 강의에 임해 보니, 강의라는 것이 마냥 준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1차로 국내의 명강의라고 정평이 난 교수들의 강의를 청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몇몇 저명한 교수의 강의를 녹음해 오기도 하였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기대를 가졌던 분들 중에는 되레 명성에 비해 실제는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 필자는 가장 모범이 되는 교수법을 찾아 그것을 나의 교수법으로 삼고자 했었다. 그래서 엄청난 수고로움을 감수하였던 바인데,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다. 어떤 수업내용과 강의방식은 상당히 마음에 와 닿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개성과 역량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게는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강의가 도움이 되고, 느끼는 바도 많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고, 나에 걸맞은 강의법을 스스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좋은 강의를 위한 방법으로 나름대로 몇 가지 방향을 설정하였다.

무엇보다도 듣는 사람 중심의 강의를 하기로 하였다. 우리 나라는 교수가 무엇을 강의하든지 학생들은 그저 따라오라는 잘못된 풍조가 팽배해 있다. 그렇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강의에 만족감을 느낀다 한들, 듣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듣곤 한다. "질 높은 강의를 해도,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서 이해를 못한다…"고, 교육

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력이 떨어지고, 지식과 교양이 부족한 학생들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강의내용이 훌륭함에도 학생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가르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만약에 학생의 수준이 낮은 것을 몰랐다면 그것도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요, 또한 학생들 수준이 낮음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강의를 진행했어야 옳다. 그것이 요즘 말하는 눈 높이 강의가 아니겠는가? 우리 대학사회는 오랜동안 가르치는 사람 위주의 교육이었다.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좋은 강의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식이나 행동양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해해야 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학기마다 간단한 설문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교수들에게 무엇을 바라며, 강의에 대한 불만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요즘의 학생들은 한 해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10년 전의 학생들 자료를 가지고 지금의 학생들을 대한다면, 그것은 신석기 시대의 사고관념이 된다. 지금은 1, 2년 전 자료도 참고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듯 학생이 빠르게 변하는데 교수들이 자신의 주관만 고집한다면 둘 사이의 틈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학생들의 공통의 불만을 읽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특히 강의야말로 고교 때와는 진짜 뭔가 다를 거라고 기대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다. 강의가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한다는 것, 교수가 칠판에 필기를 하고 그러면 학생들은 그것을 그대로 노트에 받아 적는 식의 고등학교와 별반 차이가 없는 구태의연한 강의방식이고, 또 내용이 고등학교 수업내용의 단순 연장에 불과하며, 어떤 것은 그 내용이 진부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는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는 하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어떤 과목은 교양과목임에도 아예 교수의 개인적인 관심분야만을 강의한다는 것이다. 3년 전 심지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의내용과 강의방식이 변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아직도 불성실하고 수업준비가 소홀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전부터 한결같이 지적되는 내용들로 색다른 것이 아니다. 대학이 그만큼 변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필자는 위와 같이 학생들의 불만사항을 철저히 알아본 다음에 한 학기의 강의내용과 강의방식을 세웠다. 사실 학생들의 불만사항을 완전히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처만 취해도 이미 절반의 성공은 이뤄진다고 본다. 여기에 몇 가지 추가 내용을 반드시 실천한다. 학기마다 가감을 하지만, 필자의 주요한 강의방식과 강의내용은 다음의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는 교양강좌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강의의 주제는 새롭고 창의적인 것으로 한다.

매시간 강의주제를 하나씩 설정해 놓고 진행한다. 짧은 주제는 30분 정도이고, 긴 것은 14시간 정도가 걸리기도 한다. 주제와 제목은 일반적인 책 내용에서 새로운 자료와 시각을 적용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필자가 일반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수많은 자료에서 하나하나 뽑은 것들이다. 어떤 내용은 학생들이 며칠씩 힘들게 읽어야 할 두꺼운 책 한 권 내용을 평이한 주제를 붙여 단 1시간 만에 간단명료하게 다루기도 한다. 또 어떤 것은 외국의 교양강좌에서 자료를 뽑아 그것을 다시 우리 식에 맞게 재편한 것도 있는데, 아무튼 대부분은 매우 지적인 내용이면서도 학생들을 매료시킬 만큼의 신선하고도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을 택한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다룰 때는 주변의 풍부한 내용들도 최대한 함께 다루어, 하나의 주제에서 폭넓은 사실과 이해력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다른 교수의 강의시간에는 다루지 않는 것, 설령 다룬다 해도 완전히 틀을 새롭게 짜서 강의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역사 교양강의일지라도 단순히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었나라든가 또 '중국의 조세제도의 근간인 조용조 제도가 성립된 배경과 조용조에서 租와 庸과 調는 무엇이며, 이러한 조용조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천하였나?' 와 같은 것은 다루지 않는다. 이런 것은 흔히 말하는 천편일률적인 강의내용에 속하고, 또 학생들이 시간만 내서 역사책을 읽는다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과서의 내용을 단순 요약하는 강의를 지양한다. 원칙적으로 한 권의 교과서를 선택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단조로운 강의는 하지 않는다. 여러 권의 참고도서만 제시한다. 그런 참고서적의 내용 위에 또 다른 내용과 생명력을 불어넣어 강의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 직접적으로 내용이 같지 않으면서도 본 강의와 맥을 같이하여 상호 보완되게끔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강의를 들을 때나, 책을 읽을 때나 모두 새로운 감흥을 일으키게 된다.

셋째, 교양강의는 내용의 수준이 상식(교양) 이상도 이하도 아닌, 말 그대로 상식 선을 유지한다. 상식이라고 해서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주제 자체가 애초 교양적인 것도 있으나 내용이 매우 깊고 지식적이며 논란이 되는 것도 많다. 다만 그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교양적으로 수업을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손과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에는,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이나 관습 등을 인류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 예를 들어가며 강의한다. 열거하는 내용만으로도 이미 상식을 뛰어넘는 유익하고 흥미 있는 지적인 내용인데, 거기에 덧붙여 동서양의 관습과 문화의 차이까지도 다루는 것이다.

넷째,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도록 강의한다.

우리는 가끔 어렵게 강의하면 권위가 있고 아주 쉽게 강의하면 강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폐단이 있다. 강의는 어렵게 하기가 쉬운 것이고, 쉽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외국의 어느 저명 교수가 "나는 학기마다 심각한 고민에 빠지곤 한다. 어떻게 하면 강의를 이해하기 쉽게 할까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일본 어느 대학의 강의평가에서도 "강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가, 난해한가?"가 제일 중시하는 항목이라고 한다. 대학 강의를 맡았다면, 적어도 10년 이상 한 분야를 연구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도 가르치는 사람의 학문적 능력 자체가 문제된다면 그것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 문제는 그 학문 분야를 어떻게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강의가 난해하고 흥미가 없다면, 학생들은 강의시간에 딴 짓을 하거나 졸곤 한다. 이는 곧 학생들에게 그 학문에 대한 열의마저 잃게 만든다. 교육에서 학습동기의 유발만큼 좋은 것은 없다. 또 시간의 한계상 강의실에서 모든 지식과 교양을 다 다룰 수도 없다. 그 과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만 일으켜주면 학생들은 호기심으로도 스스로 자료를 찾아본다. 억지로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하고자 할 때 교육효과는 극대화된다. 흥미와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좋은 예화와 재치, 때로는 말의 톤도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때로는 강의실에서 건강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강의일지라도 학생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고, 학생들이 이해도 하지 못하는 데다 수업중에 졸기나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을 것이다.

다섯째, 판서를 최소한으로 한다.

필기 없이 강의하는 동시에 학생들도 원칙적으로 필기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학생들이 강의 속으로 함께 들어와 생각하라는 취지에서다. 필기를 하지 않고 교수와 학생이 마주 보며 이야기식으로 수업을 전개하면, 이해가 훨씬 빠르며 기억 또한 오래 간다. 그것이 또한 강의실에서 교수 따로, 학생 따로가 되지 않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교수가 판서를 하고, 그것을 학생들이 필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방식이 너무나 관행화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대다수의 학

생들은 타성에 젖어 거의 무조건적으로 강의내용을 빽빽이 필기하고, 책을 읽으며 암기하고 있다. 학생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열심히 필기하고 암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그 과목이 자기에게 지식으로나 교양으로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오직 시험을 위해서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그 학기가 끝나면 그 비싼 교재와 한 권이나 되는 두툼한 노트는 일생에 두 번 다시 보지 않게 된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無판서, 無필기의 강의를 해 보니, 이보다 더 힘든 방식도 없음을 알았다. 우선 수업준비가 상상 이상으로 요구되었고, 체력적으로도 매우 힘이 들었다. 그러나 강의실에 빽빽이 들어찬 학생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강의에 매료되어 집중하는 모습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강의가 된다. 가끔 필기를 하고 싶다는 학생이 있으면, 최소한의 요점만 하게 한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 집에 가서 자신의 주관을 가미해서 정리하도록 하게 한다. 교수가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필기를 해서 달달 외우기만 한다면 그것은 창의력과 상상력은 말살된 채, 단순히 앵무새와 같아질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강의준비는 평상시에 꾸준히 한다.

필자는 전문서적이나 신문 등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정리를 한다. 학술상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강의를 위한 메모도 해 둔다. 이렇게 십여 년을 하다 보니, 현재 필자의 강의준비용 노트가 수십 권에 달한다. 그러니 언제나 새롭고 신선한 주제를 뽑을 수가 있다. 또 이미 정리 완료한 내용에도 끊임없이 새 자료를 첨부하고 새 시각을 덧붙이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설령,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음에 강의를 한다 해도 이전과는 색다른 맛과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그리고 아무리 자신 있는 주제일지라도 강의 전날에 반드시 검토하고 확실하게 익혀 둔다. 그래야만 본 강의가 매끄러워진다. 그래서 강의가 있는 전날에는 저녁 8시 전에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외에도 과제물은 반드시 일일이 지적해서 되돌려 준다. 그리고 수업에 열중하지 않는 학생들은 예외 없이 지적하여 강의실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한다. 또 강의는 열정을 가지고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전문용어나 어려운 한자는 피한다. 그러기 위해 어휘력 배양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다. 강의시간에는 절대 늦지 않으며 휴강도 일체 하지 않는다. 이것 만큼 학생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도 없다. 그리고 강의 분위기와 학생들을 부드러우면서도 확실하게 장악한다. 또 하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을 애정으로 대하고, 교수자와 학생이 하나가 되는 수업분위기를 만든다. 이것은 필자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열정적이다', '인상적이다'라는 말과 함께 가장 많이 꼽는 항목이기도 하다.

성적평가에서는 평상시의 수업태도도 반영한다는 것 외에는 크게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다. 다만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열과 성을 다해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 입에서 불만족의 반응이 나오는 것만큼 서글픈 일도 없다. 그래서 필자는 반드시 한 학기가 끝나면 스스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으며 학생들의 반응을 체크하고 보완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3년째 되니,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이 필자의 강의에 몰려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교양 한 과목에 300명이 모이더니, 다음에는 400명이 넘쳤다. 우연인가 했더니 그 다음 학기에는 500명, 그 다음에는 600여 명이 수강했고, 마침내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이제는 학기마다 넘쳐나는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로 심각한 고민에 휩싸인다. 엄청난 수의 학생들 때문에 개강 첫 시간은 노천극장에서 하기가 일쑤다. 필자가 강의를 맡고 있는 충남대학교에서는 이만한 학생들을 수용할 강의실이 없다. 그래서 분반을 해서 최대한 수용을 해보지만 밀려드는 학생들을 모두 감당할 수가 없

다. 어쩔 수 없이 매번 전공까지 빼고 수강하러 왔다고 울면서 버티는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쫓아내야 하는데, 그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다.

요즘의 대학은 취업 비상이다. 거기다가 학생들은 개인주의가 뚜렷하고 셈에 밝다. 따라서 순수학문은 기피하고 취업 쪽에 유리하거나 자신의 전공과 유관한 강좌만 쫓는 경향이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순수 인문 교양강좌는 고사 직전에 몰리고 있다. 이는 대학과 사회 모두에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필자가 담당하는 '역사의 이해'나 '동양의 역사와 문화'와 같은 사회진출에 별 도움도 되지 않고, 필수과목도 아닌 인문강좌에 5백~1천여 명씩 몰려든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필자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기도 한다. "내가 정말로 그 수많은 학생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강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회의와 부족함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주위로부터 득보다는 해를 많이 입는다는 것이다.

강의는 분명, 하는 사람의 독특한 개성과 분위기가 반영된다. 때문에 그것을 활자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필자의 강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필자의 견해로는 명강의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이다. 즉, 획기적인 강의법만을 창조하려 애쓰기보다는 평범한 것들을 챙기면 된다고 본다. 사실 필자의 강의법도 그렇게 특별난 것은 없다. 항상 학생들을 이해하려 했고, 쉽게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부단히 노력했을 뿐이다. 그리고 강의이론이 이론으로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실제 강의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필자의 강의는 부족한 점이 태반이다. 이번 기회를 빌어 더욱 연구 노력하고자 한다.

김용법

충남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충남대 사학과 강사와 한국방송대학교 문화사 Tutor로 활동하면서, 대전방송 'FM 정보센터'의 '일일칼럼'을 담당하고 있다. 저서로 『중국의 역사와 문화』와 "南朝士人에 관한 연구", "南朝의 士風에 대하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